



사진 위에서부터 스님합창단, 어머니합창단, 해외지원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독일지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공연 모습.

간암환자돕기 '한마음선원 합창제' 대성황

"We go together, like rama, lama, lama..." 노래에 맞춰 청년들의 절도 있는 댄스가 무대에 펼쳐진다. 얼핏보면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의 공연중 일부 순서다. 관객들중에는 "불교음악 공연이 이렇게 세련되고 발전한 줄 몰랐다. 너무 재밌고 신나다"는 환호성이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11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어린이와 청년(150명), 어머니(350명), 아버지(100명), 스님(80명), 4개 해외지원 불자(80명) 합창단 등 총 1천여 사부대중이 펼친 '간암 환자 돕기'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한 뜻깊은 행사였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가 나타나며, 마음이 어두우면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선법가를 부르며 무대와 객석이 흥겨움속에 부처님 가르침의 참 의미를 새겨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4개월전부터 합창제 준비에 몰입한 한마음선원은 합창단은 물론이고 신도회가 중심이 돼 기획, 홍보, 의전, 공연 프로그램 등 행사 계획을 지밀하게 세워 분업화 했다.

문명진 신도회장은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신도들이 보여준 열정은 오히려 공연 무대보다 정말 눈물 결도록 감동적이었다"며 "1주일에 세 번씩 퇴근 후 연습을 끝마치고 자정이 넘어 2시간 거리에 있는 상계동집까지 돌아가는 신도들을 보며 안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도주완 거사합창단장 총무도 "공연 연습을 위해 노래를 계속 부르다보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가사 내용도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해진다"며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생각에 합창단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한다"고 설명했다.

오후 3시 곱게 장식된 꽃무대에 거사 어머니 흥성합창단이 등장하며 합창제의 막이 올랐다. '그 마음 그대로' '해수 관음의 빛' '한시무의 대중이여' 등 선법가 음성공양에 이어 어린이 합창단은 '입의 소식' '첼피어' '댄싱 퀸'을 무용과 함께 선사했다. 특히 선재동지들의 양동무와 무용을 지켜본 관객중에는 '부라보'를 외치며 즐거워 발을 구



공연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중앙)이 축하메시지를 쓰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부장 지원 스님.

"노래 자체가 수행" 모두 일심동체 1천여명 한무대 공연장 장엄 일석 독일 등 해외지원 4곳서도 대거참여

르는 이도 있었다. 아마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간암 환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더라면 금방 홀출될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유쾌하고 즐거운 무대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첫 공연에 이어 한마음선원 대중 스님 80여명으로 구성된 스님 합창단이 출연해 '영원한 오늘' '내 한 생각 법이 되어' 등을 불러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합창단중 출연 자체가 감동을 전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온 30여 벽안의 불자들, 이중 볼란드 피취 교수(62·뮌헨대 비교종교학)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피취 교수는 2001년 로마 바티칸 시티에서 신부가 되려고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 대행 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감화돼 개종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합창제에 참가하기 위해 공연 1주일 전 독일서 날아왔다. "한글을 몰라 처음에는 가사를 소리나는데대로 독일어로 적어

놓은 뒤 연습했다"며 "1백명 이상 부르다 보니 이제는 외울 수 있을 만큼 숙달 됐으며 부름수록 마음이 맑아짐을 느낀다"고 즐거워 했다. 이외에도 해외 지원합창단 반주자중에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독일 라이프치히 오케스트라 비올라 주자인 요한나(35)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어느 한 순서도 가뻛히 흘러 보낼 수 없는 매머드 공연이었다. 1천여 출연자들도 무대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일사불란하게 공연 했고, 관객들도 이에 화답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 순서는 1천여 합창 단원들이 모두 무대로 나와 1회 공연때와 마찬가지로 앵콜곡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며 회향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조영근(작곡가)씨는 "요즘 각 절마다 청년 불자들이 줄어 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하지만 이날 공연에서 한마음 선원 합창단이 청년 불자들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다"고 말했다. 황남재(판화가)씨도 "마지막 순서에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며 "환희심이 막 겹쳐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구를 이끌고 공연장을 찾은 운문 스님(운문사 주지)은 "정말 대단해. 찬불가 공연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장중한 느낌을 주는 공연은 흔치 않아. 불교 음악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아"라며 함박 웃음을 띠었다.

이날 공연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명예교수인환 스님,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화성 응주사 주지 정각 스님, 부산 감로사 주지 혜종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택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정각사 주지 광우 스님(전 전국비구니회 회장) 전 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금된 보시금은 특별 수익금을 포함 1억8천여만원 정도다. 한마음선원은 11월 말 어려운 처지의 간암 환자들을 추천받아 각각 1천만원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제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린이와 청년, 어머니, 아버지, 외국지원 합창단 등 1천여명의 총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한마음으로 회향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시	교통편	기간	일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일시정부, 육불사 참관 호텔 휴식
11월 28일	고속버스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버스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유왕사, 천동사 순례 황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시호유림, 영오사, 육회암 참배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워불사, 담저사, 용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공양석굴, 워악사, 연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